

내 블로그 이웃블로그 모두의 블로그 바로가기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목록열기

베니는 유럽종단마라톤에서 뭘했는가?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본사



쭈쭈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2009 유럽종단(TransEurope Footrace) 서포터로 참가-자세한 얘기는 차차
이탈리아 **Bari**부터 노르웨이 **Norkapp**까지
64일간 4500km

POWERBLOG
By NAVER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지도를 아래부터 찬찬히 보시면- 이탈리아-구두 발꿈치부분(**Bari**)에서 시작해서 푸욱 쪽- 북쪽으로 전진
64일 뒤에는 노르웨이 **Norkapp**-유럽의 북쪽 땅끝-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



이 대회는 현존하는 최장거리 마라톤으로 기록에 남았어요. 4,500km는 그야말로 대장정입니다.
대회규모가 있고, 유럽에서 워낙 주목받는 이벤트라 Bari 시장의 초대를 받아 시청홀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전세계에서 날고 기는 울트라마라토너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넥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넌'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Bari /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예쁜 문들이 많아서 사진찍기 행복했죠~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41

1,353,601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되고
제 본업인 **Recording&Photographing**이 시작되었네요



비가와도 피할 수 없고



다양한 앵글을 위해, 바닥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선수들의 출발을 초조히 기다리기도 하죠



무거운 렌즈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풀밭에 누워 찍기도 했어요



아직 익기 전인 이탈리아 포도밭에서 즐겁게 촬영도 했고



다른 서포터들과 서로를 찍기도 했지요



이탈리아의 어느 봄날, 만발한 꽃밭에서 즐거운시간을 보냈던 기억



어느날은 너무 더워서 고생



촬영은 하루종일 기다리는 작업입니다.



자연스러운 필름을 위해 풀숲에 숨어 촬영도 하고요



여럿이 촬영하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독일에서는 하루 날 잡아서 44km에 도전, 힘겹게 완주도 했구요



북유럽의 자연풍경은 아름답고도 눈이 시러 추위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어요



선수들을 기다리다 심심해지면, 여기저기 생태계 탐구도 하고



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었던가..
성유리가 '나는 라플란드로 갈거야,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거든.'이라고 말하고 현빈을 떠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라플란드Lapland'는 스웨덴의 **Local Area**를 가르킵니다. 북유럽의 사미Sami족이 거주하는 문화지역입니다.
멋진 산타클로스의 순록과 우아한 자작나무의 숲, 사미족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북쪽으로 갈 수록 추위가 견딜 수 없어서(봄이라는게 믿기지 않았어!)
핀란드에서 산 털모자쓰고 우비까지 갖춰 입고- 아흑- 얼마나 추웠든지 -.-,
이 사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올리는 것이죠-
대회후 포토그래퍼랑 대회가 끝나갈 때까지 인사만 주고 받았는데, 계속 나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사진을 찍어 대회후에 올렸더니 주변 친구들에게서 '이 일본인여자에 대해 알려달라'는 메일을 여러개 받았다는...
그 말을 내게 하길래 정말, 서로 민망해버린 ㅋㅋ



대회 전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온 몸으로 맞으며 멋진 사진을 찍겠다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작가정신!

나는 박수를 받았고, 감기가 보너스로 따라왔다-

내가 했던 일을 보여 줄 만한 사진들을 뽑다 보니..
아, 가슴이 또 뭉클-

내 생애 최고로 불편한 여행

하지만, 가장 많은 유럽사람들과 함께 움직여 본 시간들이었고,

내가 거쳐간 나라들의 시골길을 달릴 때

표현할 길 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어

베니의 유럽총단마라톤

세계여행, 유럽총단, 라폴란드, 바리, 노르캅, 불편한여행, 북유럽여행

덧글 36 역인글 1 공감 1

구독하기 북마크 보내기 인쇄

어바웃 바리 가격비교

바리, 생활, 주방용품, 잡화, 아이디어상품, 같은상품 최대 8% 추가할인.

북유럽여행전문 부산블루여행사

2012년여름특가 북유럽왕복 77만원, 베르겐행 항공권포함, 실아라인무료예약

유럽여행 추천 투어2000

유럽패키지전문, 유럽여행, 인기상품, 비교필수 초특가, 조기예약 선착순마감

Ads by

가입신청



▲ top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1

바쁜 시간을 쪼개 사진을 올려봅니다 ^^

제가 유럽종단마라톤을 하고 왔던 것이 정말 있었던 일이던가?

싶을 만큼 오래전(2009년)일이 되어가고 있네요 ㅡㅡ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마라톤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고 싶었으나~

여의치가 많군요 ㅎㅎ

하지만, 사진으로나마 당시 분위기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순 있지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언젠가 풀어낼 기회가 올거라 믿으면서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64일 중 1번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신이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네요-

유럽대회이다보니 대부분의 참가자가 유럽인이죠(당연한 얘기지만 ㅎㅎ)
장기간의 레이스다 보니,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시지요?

첫날의 레이스를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족, 애인, 친구들- 등등등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카세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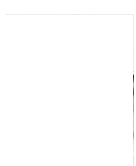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세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여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가장 참가인원이 많았던 독일팀- 왜냐면 대회 주최자가 독일 할아버지거든요~

이 많은 사람중에 **최고령 할매(70이 넘으심되)**가 계십니다. **65번 할머니**를 주목해주세요 ^^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51

1,353,611



프랑스 팀이에옹 ~

불어처럼 다들 성격이 보들보들 ^^

친절하고 참 유쾌한 분들이셨어요~

맨 앞줄 오른쪽에 배철수DJ랑 비슷한 분(내생각 ㅎㅎ)

GIBI라는 아저씨! 꼭 다시 만나고 싶은 훈남 아저씨~



자자자~ 여기 젊은 두 남자가 있어요!

가장 잘생겼던 ㅋ 조각미남 (오른쪽) 마티아스~

스웨덴팀이고, 군인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 그래도 군인포스가 찰찰~ 두 사람의 활약 완전 기대해주세요-

금데, 잘생기고 성격 좋고. 그래서 일찍 결혼했나 ㄸ_ㄸ



어라, 일본팀 사진이 빠졌네요 ㅎㅎㅎ

암튼 대회 여성 마라토너들 ~

맨 앞줄이 일본 오네상~ 빨간티를 입은 히로코상은 여성부 1위 후보임다!
뒷 줄에 다른 분들 잡담 중 ㅎㅎ

평균연령 딱 나오죠? ^^

제가 가장 막내였다는 ㅋㅋ (이 나이에 표)



프랑스 아이들~ 아빠 응원하러 왔다!

우리도 함께 달린다! 가족이 캐러반 빌려서 아빠응원왔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를 외치는 귀여운 아이들



응? 애는 누구집 애더라~



요이 땅~~~

프로 울트라 마라토너의 위엄!

크아~ 진짜 멋지죠? ^^

오른쪽 야리야리한 남자선수는 일본의 타카!

이 친구 무지 엉뚱합니다. ㅋㅋ 그리고 우승 후보이지요 ^^

회사 사표내고 대회에 참석한거있죠- 장하다~



이히~ 지비 아저씨 등장 ^^

늘無理하지 않고 적당히~ 달리면서 하루하루 즐기는 마라토너예요-

이 분은 프랑스 횡단 마라톤을 대회 주최하고 있어서 달리는 뭐 이력이 나신 양반-
나도 함 가 봐야 할 텐데 ㅎㅎㅎ 맨날 놀러오라 하시는데, 뭐 프랑스가 이웃나라인가?
일본도 못가구 있는 사람한테 ㅜㅜ



두둥~ 달리는 차에서 촬영하기 ㅋㅋㅋ



바닷가 풍경이 참 ㅡ.ㅡ
습네요 추워~

4월초였으니깐 뭐



앗! 네덜란드에서 오신 왕언니 포스! 아나케~

평생 자전거를 사랑해오신~

여친은 달리고 아나케는 자전거로 서포트하며 따라가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커플 ~

다리 근육 좀 보세요 @@



수분섭취는 최고로 중요!



네덜란드에서 오신 테오 할부지~

만날 때 마다 뽀뽀를 날리시는 ㅎㅎㅎ 귀여우신 할아버지! (올나라에서 이러단 망신살 ㅡㅡ 이지만.. 뭐 ㅋㅋ)

테오란 이름이 흔한건지- 6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 테오가 3명 @@



이 마을은 온통 성벽처럼 멋지게 디자인 되었더라고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선수들이 달리기에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물론 사진찍기도 수월하구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무서운 아줌마와 그 집 애덜 ㅜ_ㅜ

후덜덜덜





이탈리아 젊은이들~
스쿠터를 많이많이 좋아라 해요 ^^
헬멧은 꼭 착용하고- 아유 착해라~



영? 어느덧 피니쉬라인~
세 분 나란히 골~ 인!

모두들 울트라 철녀들이예요 ㅎㅎㅎ

네덜란드, 일본(히로꼬), 독일..

양 쪽의 두 언니들은 남친과 함께 대회 참석!
아주 잉꼬 커플이더이다 @@ 아주 HOT!

아 이름이... 다음 편에는 기억이 날 지도 ㅋ
다이어리는 딱 장소에 있어 가지러가기 싫고요-



일본팀 서포터 시로!

엄마가 대회에 참석해서 검사검사 따라왔어요- 첨엔 요리 통통한 모습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

대회의 귀요미!!

일본남자가 귀여운거 첨 알았다는 ㅋㅋ



차오 차오~

얼래? 김민종씨가 왜 저기에 ㅋㅋㅋ





일찍 도착 한 선수들은 자리를 펴고 눕습니다~

저녁밥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해요-

오늘은 여기서 잔답니다.

대회의 룰은 먼저 도착한 사람이 명당차지!
매트리가 있을 당연히 먼저 찌하는 사람가~



우리의 닥터!

저랑 동갑...이었죠 네네 ㅎㅎ 하지만 쉽게 친구먹기 안되더라구요- 포스가 남달라서 ^^

하지만 잘 웃고 유쾌한 남자 안! 덩치도 크지만 일어나면 키가 190cm가 넘어요 @_@

니콘카메라를 썼는데, 사진도 참 잘 찍더만요 ^^

확 마니아라서 맨날 락페 같은데 다니고 그래요 완전 덕후~ ㅋ

타투도 진짜 좋아해서 큼직한 몸에 큼직한 걸로 몇 개 했더군요-



아이들은 참 귀여워~ ㅎㅎㅎ(멀리서 볼 때만 ㅎㅎ)

배고파서 졸고 있는 ... 어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 조만간 기억나겠죠.

토마스(요리사) 아들입니다.

휴~ 올만에 여행기 올리니 기분이 시원~ 합니다 ^^

일요일군요.
이제 자야겠어요.

결혼식장 가야하는데!
팩도 좀 하고 그래야하는데 으흠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

대학동창이 장가갑니다~
저는 마지막에 갈 생각이구요!

사위감 골라오라는 명 받고 비장한? 맘으로 식당으로 갑니당~

행복한 일들되세요 ^^

다음편 궁금하시죠?
ㅎㅎㅎ

세계여행, 유럽종단, 이탈리아여행

덧글 39 역인글 공감 6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이탈리아여행 투어2000

유럽패키지전문, 이탈리아여행, 상품가
및 일정, 타사비교필수, 볼맛이 파격특가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비바이탈리아의 이탈리아여행

허니문, 가족 여행, 토스카나, 아말피코스
트, 다양한 로마 피렌체 베니스 상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1 2 3

5줄 보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2009 TransEurope FootRace 4,500km for 64days 2009년에 유럽종단마라톤에 서포터로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게을러 꾸준히 운동할 그릇이 안되어 64일간 4,500km를 달리는 장거리, 장기간 대륙종단 레이스는 꿈도 못꾸죠. 하지만, 친구덕분에 이렇게 대회를 즐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무모한 짓을 잘하는 편인데요. 매일 평균 70km를 달리는 선수들과 섞여 생활하다보니, 저도 어느새 그들의 열정에 감염되어서 평소 달리기 해보지도 않고, 2006년에 서울마라톤에서 12km뛰어본게 마라톤 경력의 전부였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 그냥 달려보기로 했어요-

5월 20일 독일북부를 지나고 있었고, 마침 44km의 최단거리의 날이라 웬지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걱정하고 떠난것도 아니지만, 당시 저와같은 서포터들이 가끔씩 자신이 서포팅하는 선수들과 별개로 뛰고 싶은 날 같이 달리고 그러길래 저도 따라나선거죠@@ (내 상태는 어쩌고!!!)

사실, 대회 시작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대회우승자인 독일선수 Rainer Koch가 보내준 메일을 열어보니 제 사진이 떡! 걸려있는게 아니겠어요 @@ ㅋㅋㅋㅋ

대회당시에도 저랑 참 가깝게 지냈었고, 지금도 연락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선두그룹은 일반그룹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해서 이 사진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라이너는 항상 선두그룹이라 한 번 지나치면 그날 저녁에나 만날 수 있는데,
다행히 나를 스쳐갈 때 찍어주었어요.

그럼 당일 사진을 함 훑어볼까요@@

저랑 함께 44km달려보실 준비 되셨죠!



자, 아침이에요!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표정이 멍~ 내가 무슨일을 하려는지 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_-;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44

1,353,604

대회 32일째 5월 20일

기념촬영했어요. 왼쪽은 타이완 루이첸(대회 끝나고 타이페이 경유할 때 이분덕에서 뒹으며 신세였죠 ㅎㅎ)
오른쪽은 저와 같이 서포터로 활동했던 일본친구 시로의 어머니!!!(시로는 어머님과 일본팀 서포터로 참가!)

두 분다 저와 친해서 잘 하라고 응원겸, 함께 사진찍어주심!



또, 여기 한 분.

제 안위를 심히 걱정해주신 네덜란드에서 오신 테오 할아버지!!! 연세는 대략 60대 중후반
 저만 보면 맨날 안아주시는 —..— 가끔 볼에 뽀뽀도... 술잔 건치시면 입술에 하시려고 해서
 제가 도망다니고 그랬죠 ㅋㅋㅋ



이제 정신이 좀 든 모양@@
 제 주변에 보이는 동양인들은 모두 일본인입니다.



가운데 흰옷도리+검정바지+스킨헤드- 대회주차자 인고 아저씨
 (독일인이고 울트라울트라 마라토너+마라톤기획자 겸 에이전시대표)



오전 6시 30분 일반그룹 출발~
그저 이 순간만큼은 1등하고 싶었어요 ㅡ.ㅡ



하지만, 그저 그 순간 뿐- 이제 진짜 레이스는 시작되었어요



아직 여유가 있어보이는 베니



저 앞에 첫번째 체크포인트!

아, 제 왼편을 보시면 이 지방에는 달팽이가 많이 사니까 조심하라고 써있어요 @@



보세요! 집없는 달팽이가 이렇게 길위에 기어다녀서 사람들이 밟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



나보다 앞서 도착한 시그리드 할머니(독일분이고 최고 연장자 71세)
평생을 달리기만 하신 분이고, 최고로 많은 마라톤을 달린 여자선수로 기네스에 오르셨다는 독일의 전설적 인물



할머니라고 만만히 보지 마세요@@

모두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세요! 저는 뭐 가끔씩 할머니 발마사지도 해드리고 이쁨받았죠 -0-;



제일 먼저 물보급부터!



아.. 내리찍는 태양 빛!!
오전 8시 10분인데 이모양! (오늘 무지 덥겠다 ㅜㅜ)



벗어 벗어야해 @@



개운하게 다시 달려봅시다~



저는 **246**번이에요 (임시번호지만~)

가방 왼쪽에 메달린 저 주홍색띠는, 인고할아버지 연락처가 써여 있어서,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중간에 퍼지게 되면 연락을 취해서 SOS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전화해 봤는데, 데릴러 안온다는 -_-)



어 걸고 있다 벌써@@



까~ 마티아스다!!!
대회참가자 중에서 가장 잘생겨서!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스웨디쉬~
근데 폼질남 ㅋㅋ 어찌나 안타깝던지! 게다가 성품도 좋아서.. 흑 지금생각해도 어찌나 아쉬운지...
직업군인!



날이 더우니 쉬엄쉬엄 가자.
여기가 어디냐 @@



봄이라 여기저기 유채꽃이 만발했어요@@
독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일줄이야 ... 정말 몰랐어요 ~
(이 때 에이브릴 라빈, 존레논의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오, 제 서포터들이 나타났어요 @@

안쪽의 여자는 맨 위에 보면 저랑 사진찍었던 루이첸(타이완)아저씨 와이프, 리
그리고 빨간티셔츠 시로! (엄마, 일본팀 서포터로 참가)

둘다 가족따라 왔네요 @@ 전 친구따라~

유일한 동양 서포터들이라 셋이서 한 차타고 다니며 삼남매처럼 절친하게 지냈어요@@
너무나 그리운 사람들~보고싶다~



시로랑 베니랑 번갈아가며 운전하는데, 시로는 자주 마라톤을해서 살도 쪽쪽빠지고 내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내가 마라토너! 두 사람은 제 전용 서포터하기로 하고 열심히 응원해줬어요.



아직 땀음이 나오네~ 응! 더 달려봐
11시 10분 경

한참을 달려도 다음 체크포인트 안나옴...



1000m전방에 올리있음 ! 표시



아, 여기서다 ...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 못봤어요.

제가 너무 늦게오니까 이 장소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다들 가버리고 ㅜㅜ

대회 규정상 일정시간 이후에는 체크포인트가 철수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선수들은 물과 음식을 받을 수 없어요...

더욱 힘든 상황이 되는거죠. 휴- 그래서 시속 6km 로 달려야 그나마 음식이라도 먹는다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땠나요- 그냥 걸다 뛰다 또 걸다가..



시그리드 할머니 벌써 도착했다 가셨죠-

할머니는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져서 똑바로 서서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대요- 대회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어요.

할머니 몸을 만져보면 근육, 지방이 하나도 없이 그저 뼈와 가죽!만 있는 미라같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대단.



우리는 매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오늘의 메시지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그래요 저도 빵만먹고 살순없어요 -- 채소가 더 많이 필요함 ㅎㅎ

제가 도착해보니

리...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ㅠㅠ

흑흑 고마워라....



우리의 식량들은 트렁크에 잔뜩 쌓여 있어서 서포터들은 가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대회에서 준비한 음식이외의 것들을 공급해줄 수 있어요-



게다가 날이 너무 뜨거워서 씌크림까지 챙겨 주는 리.. 엄마같은 큰이모같은 존재 ㅠㅠ

근데, 시로.. 넌 어딴는 거야?



리 덕분에 기운 왕창 차리고- 다시 고고씽!!
이제 혼자만의 레이스! 두 사람 다 가족한테 가봐야 하므로, 마지막까지는 나 혼자-
얼마나 남았더라 ㅠㅠ



그 시각.

시로.. 이려고 있느라 나는 내뺨겨치고 ㅠㅠ

털썩... 남자는 다 똑같누?



대회 닥터 쌤-- 안!!! (나랑 동갑이고 덩치는 K1나가서 챔피언할만큼 거구 190넘고 근데 무지 귀여운 닥터 쌤 본업은 911에서 일함)
 안이 야한 신문 잡지들 가지고 다녀서 선수들이 몰려온다는 @@
 오른쪽은 독일의 톱! 젊은 선수인지라 달리다 말고 같이 신문보고 있다~
 기타가지고 와서 저녁식사 후에 가끔씩 통기타와 노래를 들려주던 로맨틱 가이~ 지만.. 역시 남자 -_-



1시가 넘었다..
 나혼자 가다가 쓰러질 지경 ㅠㅠ

배고프고 물도 떨어지고.. 여기는 어디고 내가 뭐하고 있는건지...
 토나올것같다



헉 그런데 구세주처럼 나타난 시로가!!!
빵들고 왔어 ㅠㅠ 엉엉 모든걸 용서해줄게 흑흑



먹을거 먹고나니 다시 기운차린 베니
사진촬영하는 여유까지- 〇〇



머리가 꼬질꼬질합니다.

유럽에 가기전에 호주에서 수단친구가 한가닥한가닥 딸아 준 머리인데 이거 관리하기가... ㅠ_ㅠ
냄새+가렵고... 암튼 머리에 버프를 항상 두르고 다녔어요 필수!! ㅎㅎ



드디어 종점 ㅠ_ㅠ

이날 머무를 타운에 들어선 순간. 저 멀리서 시로가 기다리고 있어줘서
나 완전감동 ㅠ_ㅠ 시로 아까 욕해서 미안해 흑

그리고 안을 만났다. 내 오른쪽에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네덜란드에서 온 선수인데-
최후 **Top3**에 든 아저씨! 매일 레이스 후에 우유를 3L씩 들이 마시던 아저씨-

이 분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왜냐면 이 아저씨 차타고 우리(리, 시로, 베니)는 종단했거든요 ^^
우리가 차량 관리까지 해준 셈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덕을 많이 봤죠
기름값이 꽤나 나가긴 했지만 --..--



Good Game !!

드디어 골인점 도착 ㅠㅠ
3시 2분.. 흑흑

아침 6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44km를 달려왔다!!

나 울트라마라토너로 우뚝 선 순간!
사람들이 무지 축하해 주었음 ㅠㅠ 완주했다고- 흑흑

나 다신 안한다고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음 ㅋㅋㅋㅋ (누가 시켜서 했나?)

신기한 것은 다음날 근육통 하나 없이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고, 심지어 뛰어다님!
당시 나에게 울트라 마라토너로 달려보라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옆구리 찔렀다는 사실~

근데, 지금은 폭퍼져서는 -- --
달리기는 좋은데, 마라톤은 너무 힘들어요~



아참, 사진 보내 준 라이너- 독일인 31세인가? 음

제가 맨날 이렇게 사진찍어주다가 이 날만큼은 제 옆으로 휘~그 바람 처럼 지나가며 셔터 한 번 눌렀을 뿐인데,
(맨 위사진)저렇게 사진이 잘나왔어요 ㅋㅋ
전 그 순간에 벌써 진이 다 빠져버려서 표정이 저 모양인데!!! -_-

대회 64일동안 거의 매일 1위를 놓치지 않은 강철체력!!

보통 선수들은 모두 다리나 발바닥에 무리가와서 중간에 몇일은 걷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도하는데...
이친구는 보통사람이 아니었음. 울트라마라토너 중에서도 괴물이란 소리를 들었던 대마왕@@

우리모두 수퍼맨이라 불렀죠!

결손한 선수라 다들 좋아했어요, 머리도 좋아서 이탈리아, 영어는 기본... 제 컴퓨터, 카메라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심지어 스피커까지 --.. (직업이 테크니션)

지금은 중국어 공부하고 낯엔 회사생활 밤에는 대학원 다니는 진짜 강철체력에 욕심쟁이예요 !!

이 대회를 통해서 유럽의 여러나라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고,
여행 할 때, 혹은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저는 너무나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계여행 나가시거든, 꼭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보세요 ^^



세계여행, 유럽종단마라톤, TEF2009, 울트라마라톤, 라이너, 인고솔츠

댓글 47 역인글 1 공감 9

구독하기 북마크 보내기 인쇄

육선 여자마라톤바지

누구나 100%쿠폰지급! 매일매일 포인트 적립, 육선 여자마라톤바지.

어바웃 여자마라톤바지

여자마라톤바지, 남녀 레저의류, 경기복, 스포츠잡화, 쇼핑몰별 최대8% 추가할인.

라이너전문 에스주방

라이너, 알뜰구매, 365일팡팡이벤트, 편리한 온라인무료견적, 상담환영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베니는 유럽종단마라톤에서 뭘했는가? (36)

· 이전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썸썸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2

Day 2

from Barletta to Foggia

(이탈리아 바틀레타-포자)

 지도보기

20.04.2009 / 69.3 km / 총 126.3 km

67 명 중 67명 레이스마감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새벽에 시작하는 레이스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제 레이스에 익숙해지기까지 몇일이 걸릴겁니다.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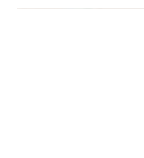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이웃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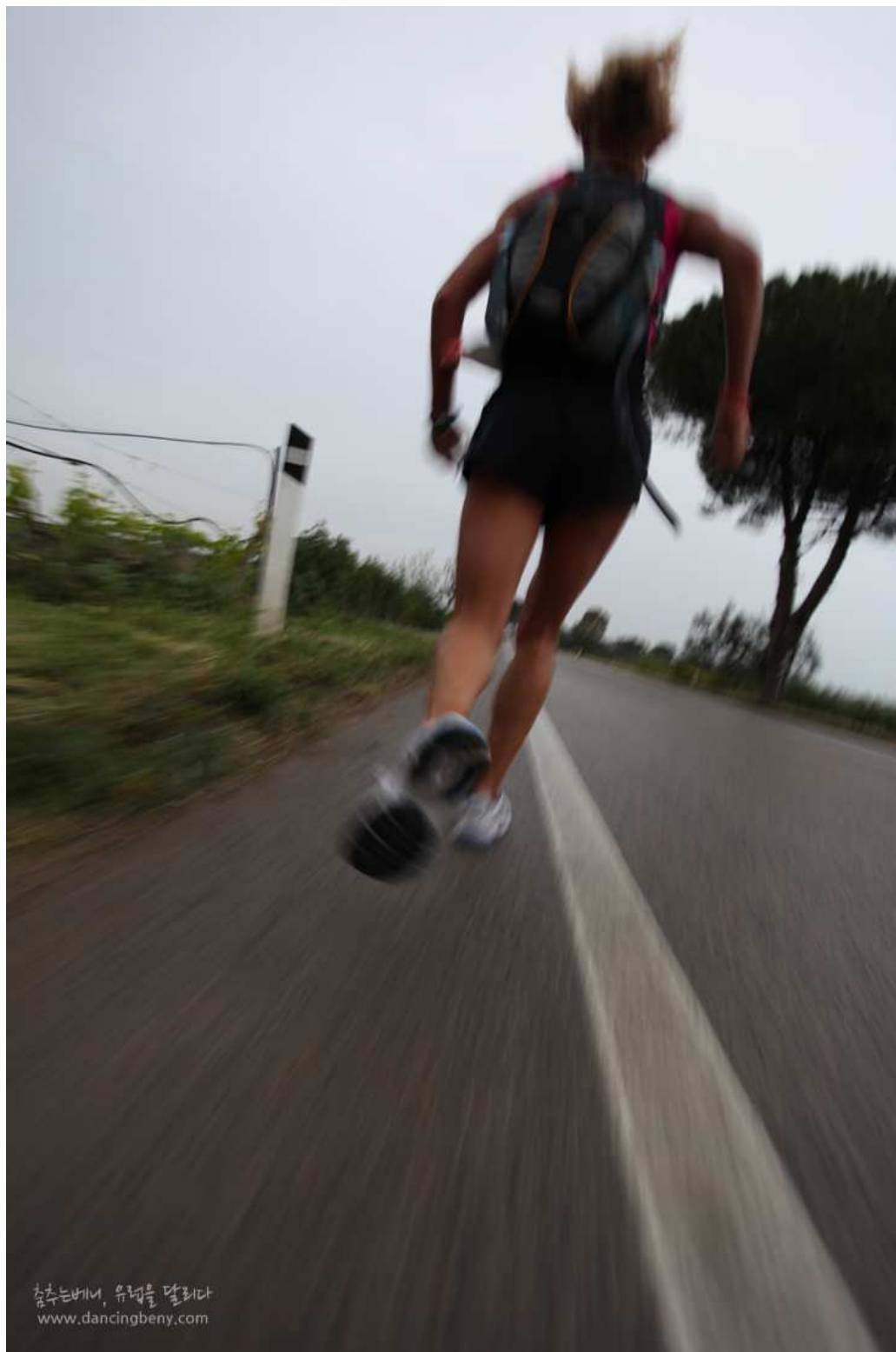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52

1,353,612

언제나 남자선수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권에서 달리는 리아

네덜란드에서 왔고, 남친은 노르웨이 사람 @@

두 사람은 울트라마라톤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 자주 못보는게 흠인데
요렇게 장기레이스에 함께 참가하면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ㅋㅋ

참 대단하지 않아요? ^^

장거리 데이트의 단점을 이렇게 해소해버리다니~

두 사람의 사진은 맨 아래있으니 궁금하시면 바로 page down 해보세요 ~



포도밭에는 어린잎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날이 비오고 추우니 사진마다 흔들흔들







체크포인트에서 선수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물도 보충하고, 고칼로리 간식들을 먹으며 에너지 보충!!



개성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레이스다보니
신고있는 런닝화도 각양각색!

64일동안 몇 켤레의 운동화가 닳아 떨어질까요? @@

선수들은 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운동화무게만해도 후덜덜합니다~
10켤레씩 가져온 사람도 있고 마라톤 경력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이탈리아 남쪽 바틀레타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

거기가 어디야? 참 들어보는 지명이죠? ㅎㅎㅎ

[지도보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 선수들 서포트 차량들이 대기 중이네요

이 대회 특징은

워낙 장거리레이스다 보니, 가족이든 서포터든 함께 참가 할 수 있어요.

워 공짜는 아니고요 ㅎㅎㅎ

애인이 너무 걱정된다면 장기휴가 쓰고 큰 캐러반을 빌려서 남친을 응원하며 같이 달리는거죠 @0@
낭만적인가요? ^^



비가 그치고 나니 길가의 예쁜 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프랑스 팀

역시, 날씨가 좋아야 모두들 힘이나는 거예요!

저를 향해 손흔들어 줄 때가 가장 기쁘죠 ^^

여러분 화이팅!



오늘은 포자의 실내체육관으로 왔어요.

넓직~ 해서 여기저기 자리잡고 벌써들 누워 있네요.



제가 운전하던 차의 주인. 안아저씨~
네덜란드에서 이탈리아 바리까지 운전해왔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지인 노르웨이 North Cape(노르캅)부터 집까지 다시 운전해 가려는 계획이랍니당
강력한 우승후보십니다 @@







고단한 레이스 후

꿀잠에 빠져있는 분들과 에너지를 먹으며 상념에 잠겨 계신 할부지도 계시네요~



한 가족이 모두 휴가 온 ㅎㅎㅎ

귀여운 이 녀석들이랑 친해지는 중이에요! 사진찍어주면서
막내가 가장 귀엽고 남자아이는 좀 까칠~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수줍어서 그런거라고 ㅡ..ㅡ

뭐 어쨌든, 아빠가 아직 도착전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



아이들이 왜 여기서 모여 있나 했더니 강쥐 한 마리가 있네요.

체육관에서 살고 있는 멍멍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 몰려와서 잔뜩 긴장했더라구요 ^^

헤치지 않게~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라~





가장 불편했던게 뭐였을까요?

예상 하셨겠지만, 인터넷을 하기가 참 --..--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을 참 잘 도 쓰더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 유럽권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도 인터넷이 잘 통하더라고요- 인터넷카드 같은걸 사용하던데, 무선인터넷비용을 좀 지불하고 저렴하게 사용하데요- USB같은걸 꽂고 @@

하긴 뭐 호주에 있을 때도 인터넷 잘 안했었지만요 ^^;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저랑 사정은 마찬가지!

그래서 요리조리 자리를 옮겨가며 혹시 와이파이기가 뜨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스팟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연결! 속도도 느리고 연결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email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어요

손주녀석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

유럽종단 마라톤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이슈가되죠-



일본인의 빨래 말리는 방법~

어딜 가든 좁은 공간을 참 잘 활용하시더라구요 ^^
그리구 술도 엄청 드시고 ㅋㅋㅋㅋ



대회 설립자 인고솔츠



위에서 설명했던 그 커플!

리아와 트롱! 남자분이 연하셔요- 두 사람 간지나죠? @@

남자분이 잘생긴데다가 은발! 히야! 달릴때는 완전 모델이예요 ㅎㅎㅎ



아, 여기도 국제커플

외모부터 울트라마라토너인 ㅎㅎ 파통(스위스)과 여친님(이름이... 독일)

두 사람도 울트라마라톤에서 만났대요- 이 대회가 끝나고 작년에 결혼~
지금은 스위스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오늘 저녁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제가 좀 추리하죠 ㅎㅎ

긴 연휴 후유증으로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손가락도 쿡쿡이 해주세욤 ㅎㅎ

세계여행, 유럽종단, 울트라마라톤

댓글 26 역인글 공감 7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탬프.

이탈리아남부 유로비행기나라

로마차량맞춤, 카프리섬, 로마, 바티칸, 남부환상차량투어 할인3종세트 20%할인.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1 2 3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이탈리아에서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3

3. stage from Foggia to Lesina

Date 21.04.2009
Country 
Length 72.2 km / 44.9 mi
Total length 198.5 km / 123.3 mi

세번째 날은 비와 함께 아침을 맞았어요.
이른 봄의 이탈리아 날씨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빗속에서 스타트한 선수들은 얼마나 추웠을까요?

저와 몇 명의 서포터들은 추위를 이겨보고자 작은 카페에 들어갔지요.

우리나라처럼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보이지 않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특색있고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은 이탈리아.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52

1,353,612



사랑스런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작은 카페 안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탈리아노들은 정말 커피를 많이 마셔용 ㅎㅎㅎ

아침먹고 카페로, 점심먹고 카페로, 저녁에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진정 카페생활이 일상이고 일상이 카페에 가는 것임을 매일 목격했지요

카페마다 작은 베이커리가 있어요. 전 주로 머핀이나 크로아상을 먹곤 했지요.

따뜻하게 데워놓는 크로아상은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거품이 풍성한 카푸치노와 함께 먹으면 걱정근심 싸악~ @@



마침 바이크 족이 계셨습뎜! 아저씨 차오~



아우~ 스트라이프 트셔츠를 받쳐 입으신 멋쟁이 할부지~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카페 의자의 소재는 투명플라스틱이에요~ 와~ 너무 예쁘죠 ^^



카메라를 보여드리자 수줍게 미소짓던 할머니~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도 포즈를 취해주셨어요 ^0^



이 카페가 왜이리 인기가 많은가 (아저씨들에게~) 했더니만!
나중에 등장한 바리스타 언니!

아주 섹시하게 생기셨군요 언니~

저도 에스프레소 한 잔 내려주세요 ^^

카페에서 노닥거리다 보니, 비가 점차 개이고- 우리는 다시 체크포인트로 이동하였습니다.









날이 화창해지니 모두들 행복한 얼굴이네요 ^^



스마일 맨 등장~



와이프들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위 사진의 프랑스 할아버지의 짝은 가운데서 수줍게 미소짓는 분





자봉중이신 유쾌한 아저씨!
머리는 흰~하지만, 실은 나이가 그리 많질 않으셔서 놀라움을 선사한 ㅎㅎ



엄마, 아빠는 왜 안와?



기분이 좋아지면 섹시한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춤을 추던 경찰언니





1,2,3등을 다투는 슈퍼울트라 마라토너들 —.—

아니! 하루에 70km씩 뛰면서 시간 단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왜냐면 세 사람의 기록이 정말 1, 2분차로 1,2,3등이 나누어지고 있었거든요 ㅋㅋ







마라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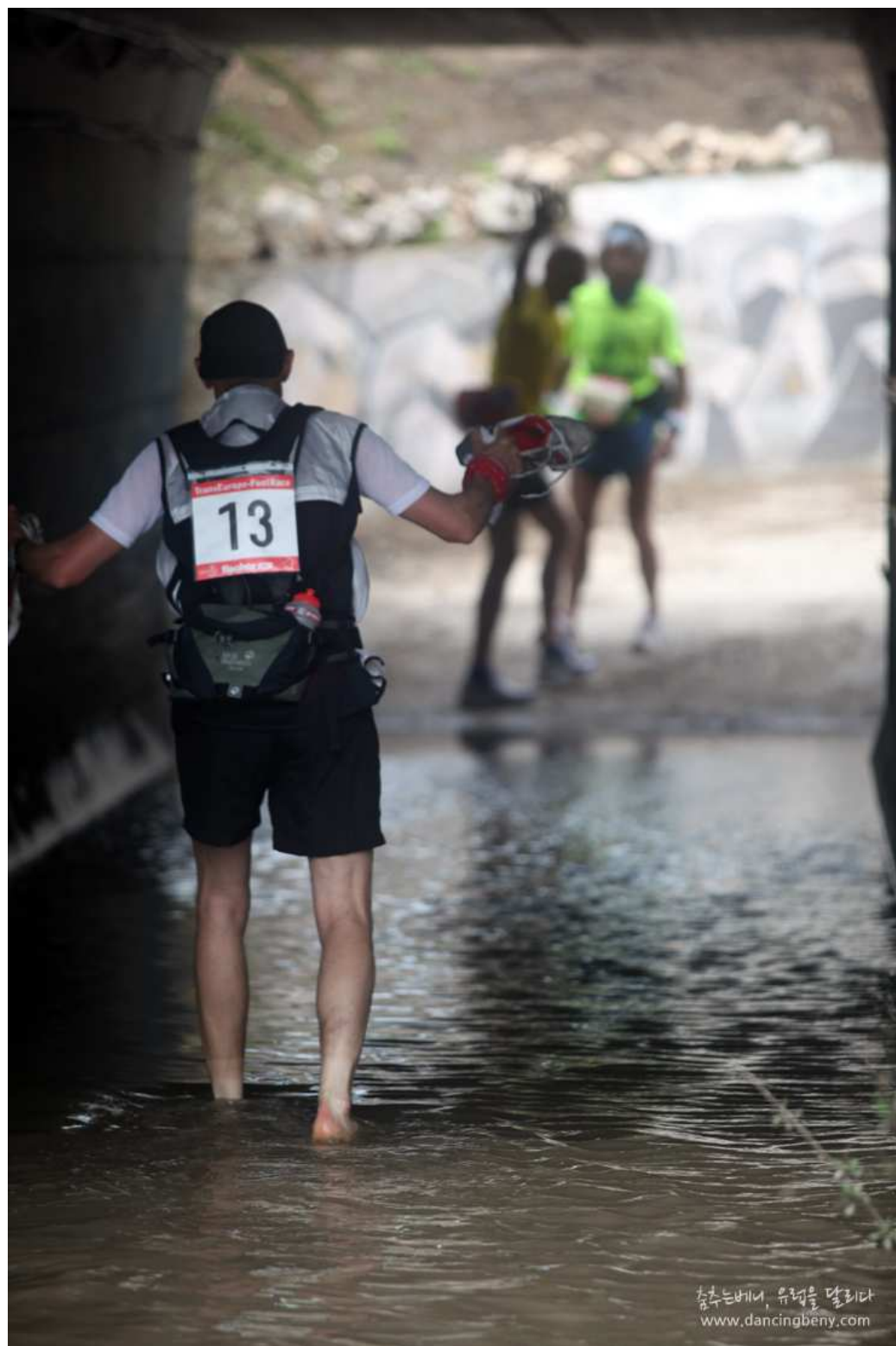




고독한 겁니다. 一.一



참고: 베니, 유럽을 달린다
www.dancingbeny.com





하지만

마지막엔 다 함께 웃는 겁니다 ^^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 

아, 오늘이 **아스파라거스 공구 마지막날**입니다 ^0^

<http://cafe.naver.com/benycafe>

세계여행, 유럽종단, 울트라마라톤, TEFR2009

덧글 34 역인글 공감 3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
낭, 마라톤복, 우통보호대, G스탬프.

옥션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 스포츠, 레저용품 특가, 브
랜드할인, 누구나100%쿠폰지급.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 이전 다음 ▷

▲ top

내 블로그 이웃블로그 모두의 블로그 바로가기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1 2 3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4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이탈리아에서 다섯번째 밤을 보낼 곳은 썬비치 캠핑장

오늘은 다 같이 주옥 불어자는 실내체육관 취침이 아니고 캠핑장이라구?

올레~~~

category ^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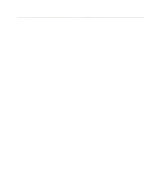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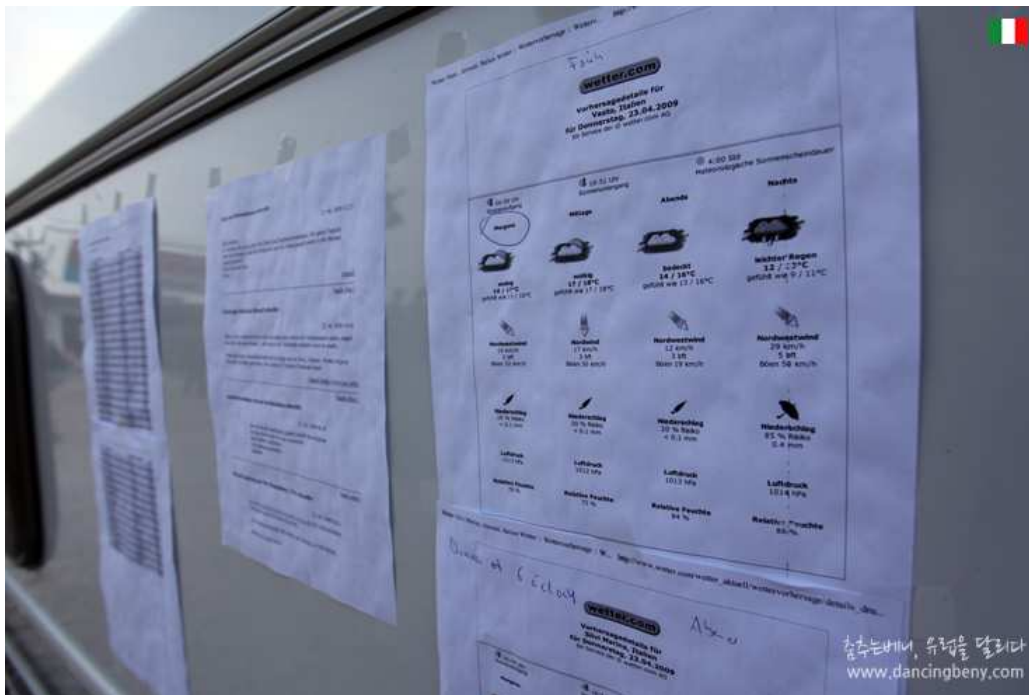
1,357

1,353,617



해질 무렵의 캠핑장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선수들은 저녁이 준비되길 기다리며 숙소에 들어가 편히 쉬고들 있고-
나는 캠핑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찍고 사람들 이랑 수다떨고 그랬지요



매일매일 기상을 체크해서 알림판에 붙여 놓는답니다.

날씨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상관관계가 높기때문에 모두들 내일의 날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요.



라이너는 슈퍼맨답게 1등으로 도착해서 미리 씻고, 남들 쉴 때 혼자서 놀러다닙니다.

어찌 그리 여유탄만하신지~

그의 DNA는 정말 연구대상 아니까요-

저녁은 6시쯤 시작해요.



일본팀 중 유일한 총각, 20대 그리고 Top3에 드는 체력짱 청년-
순수하기도 하고 좀 단순하기도 하고 ㅋㅋ
먹는 것만 좋아라하는 뭐 그런 일본 청년 타카



현재 순위 2위 르네

살인미소 ㅎㅎ (주름은 좀 있지만~) 안젤리나(여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열심히 달리는 중



유일한 핀란드 참가자.

엄청난 젠틀맨 ^^

왜냐면, 나 영어 잘 못해도 매일 대화 해 주셨음 ㅎㅎㅎ





바구니에 가득담긴 커피 프림과 복숭아 잼~
식사가 끝나고 나면 완전 초토화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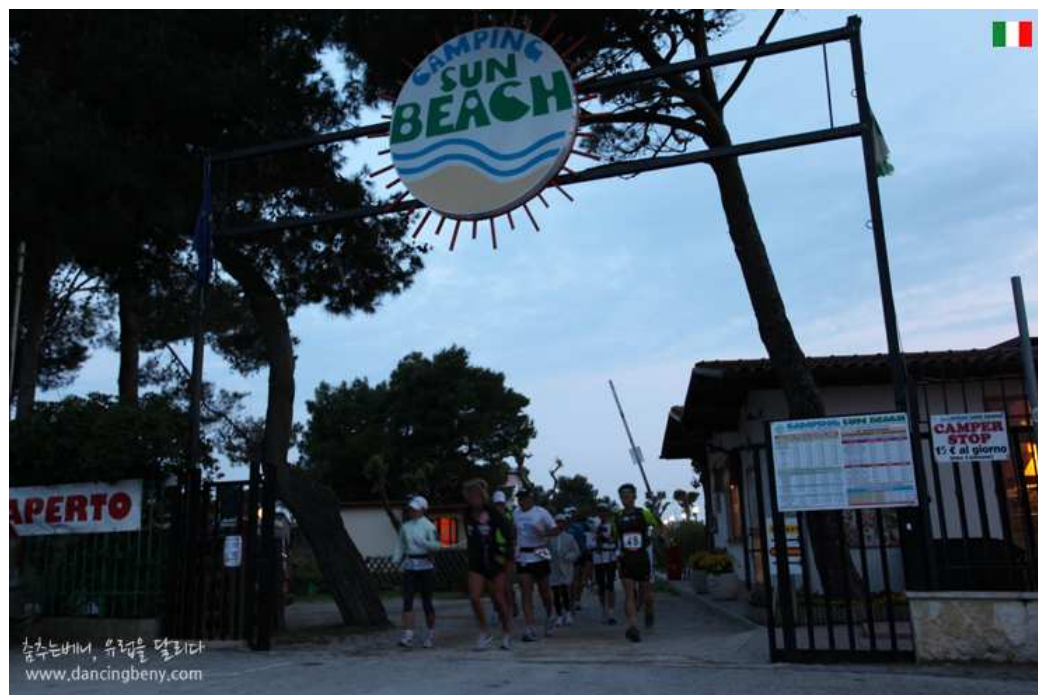
캠핑장 야경 멋지죠?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넓직하고, 전기도 끌어다 쓰기 편하고-

단점이라문.... 캐빈에 뜨신물이 잘 안나왔다는 ㅎㅎㅎ

피곤한 하루가 지나가고





6시에 1진 출발~



2진들 몸풀고 있어요~

매일 매일 랭킹을 메기고, top 10은 한 시간 늦게 뛰는 시스템~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다 일찍 들어오더라구요-

하여간 잘달려-



저는 오늘도 찡글찡글 앓아서 저러구 있네요-
비도 촬영중~ 양중맞은 삼각대 보이세여? ㅋㅋ
카메라가 제 몸값보다 비싸다보니 애지중지~



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코 앞에서 ㅡ.ㅡ



키스가 좀 진~하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휘방꾼이 ㅋㅋㅋ

트롱은 여친도 있음서 이렇다니깐요! ㅋㅋ

르네가 좀 귀요미라서 여친이 아주아주 잘 보살펴주더이다 음흐훗
저도 연하취향이라 ㅋㅋ 완전 이해감-



Bari에서부터 Nordkaap까지 4,500km @@

뭐 별거 아니예요- 64일동안 그냥 달리면 도착합니다.

오늘은 달리는 선수들은 뒤로 하고-

볼일이 급해서 ㅡ.ㅡ

원지 아시겠쥬?

ㅎㅎ

토일렛좀 쓰겠다고 잠시 들른 작은 농가에옴-



올리브 나무밭에는 키가 큰 풀꽃들이 하늘하늘 흔들리며 자라고 있네요.

실제로 본 올리브 나무는 별 감흥없이~ 강 - 아 . 니들이 그 비싼 올리브니? 이정도? ㅎㅎ

열매가 달리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요기는 딸기 농가였지 모예요~

요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들 좀 보세요 ^^
한국꺼랑 똑같네 ㅋㅋ

왕 싱싱하죠- 방금 밭에서 직접 따온거거든요~~

이렇게 왕창 따 왔는데, 얼마 줄 아세요? @@

공짜!!



풍채만큼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마라톤 한다니까 힘들겠다고 많이도 싸주셨습니다.

"제가 뛰는거 아니라니깐요 ㅎㅎㅎ" (아주 작은 소리로 ㅋ)



이 때 나타나신 아주머니!!!

양 손에 가득~ 옆구리에 끼고 오시는 페트병들의 정체는 또 무얼까요?

공짜 와인 되겠습니다!!

홈메이드 와인이라니~ 이탈리아 분들 인심 이렇게 후해도 되는거예요? @@

시골인심은 어느나라 가나 다 이런건가요?

완전 대접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대회가 끝난 뒤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

오른쪽 여인은 저와 같은 차를 타고 한식구처럼 지내던 타이완의 '리'입니다.
성이 리씨인데 그냥 리~ 라고 불렀어요 애칭으로.

남편이 선수로 참가해서 따라오셨구요. @0@

형편이 넉넉한 분이라, 저와 시로는 돈걱정 없이 커피마시구 간식먹구 그랬답니다.
귀인은 동쪽에서 오는건가봐요 ㅋㅋ



저녁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 이탈리아니까 그냥 일반 레스토랑으로 정정 ㅎㅎ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피자를 구워요 @0@
가마 아래 쟁여둔 장작들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삼처럼 생긴 도구가 보이시나요? 저걸로 피자를 굽는겁니다. 가마안에 집어넣고 꺼낼 때 쓰겠죠-

가마 주변이 넘 뜨거워서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했어요 ~



저녁시간은 언제나 즐거워~
와인은 빼먹지 않고 마셔줍니다.

everyday party party~



어제는 캠핑장에서 잤는데.. 그 말은 침대에서 잤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체육관도 아니네요. ㅋㅋ

장소가 너무 좋아서... 참.... 옆사람 숨소리 느끼며 자는 시간이 되었네요.

이건 뭐 수학여행도 아니고- ^^



그나마 실내 취침은 나은거예요 ㅡ.ㅡ

늦게 도착한 사람은 야자나무를 벗삼아 야외 취침.

무슨 1박2일 촬영도 아니고 ㅋㅋ



유럽의 캠핑카, 캠핑장은 어떤모습일까?

손가락 콕콕누르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염~ ^^



다섯번째 오픈캐스트 발행했어요 ^^

세계여행, 유럽종단, 이탈리아, 울트라마라톤

댓글 29 역인글 공감 6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제주항공할인전문 제주인투어](#)

썬비치 제주도 할인항공, 제주도단체항공, 항공패키지 최대65%할인

[유럽캠핑장 스피킹맥스](#)

100%미국영어 회화No1, 유럽캠핑장, 1분에 하나씩 판매신화! 패키지50%할인

[이탈리아여행전문부산블루여행사](#)

2012년여름특가, 이태리왕복 51만원, 이태리일주 8일 154만원, 로마 투어할인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 이전 다음 ▷

▲ top

내 블로그 이웃블로그 모두의 블로그 바로가기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1 2 3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Day5 마라톤은 힘들어-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5

일주일만에 돌아온 유럽종단 이야기 ^^

6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

오늘도 날이 흐리군요 ~ 이탈리아에서 화창한 날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ajirim4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59

1,353,619

오늘은 선수들 뒷모습이 참 힘들어 보이네요~
발걸음이 무거워보이고, 사실 뛰다가 보다 빠른 걸기네요.

6일째 아침은 이렇게 힘겹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떠난 후, 서포터들은 짐정리를 시작해요.



대회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당하셨네요...

6일 만에 집에 돌아가셔야 하네요-_-;;;

안습...



아 이분은~ 선두그룹입니다.
첫번째 그룹이 떠나고 1시간 후에 레이스를 시작해요 ^^
여유있는 모습이죠 ^^

운동화를 한 번 보세요-
발이 많이 붓기 때문에 앞 부분을 올려내고 신습니다 ^^





풍경 참 멋지죠? ^^





제일 좋아하는 GB아저씨와 함께~ ㅇㅇㅇ
아저씨 스타일 멋있저~ 아우 ~

외국사람들이랑 오래 지내다보니, 동양인들은 얼굴이 둥글둥글- 유럽사람들 얼굴이 길쭉길쭉해요 ㅋㅋㅋ
뭐 나만 둥그랴던가? ^^



두 분은 친구같이 보이네요 ^^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

오늘이 얼마나 힘든 날이었는지... 선수들의 표정이 말해주네요

특히나, 갓길에 없는 도로에서 달리는 일은 자동차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지는..



바닷가~ 로 자리를 옮겼어요-







선수용 간식들~ 고칼로리 간식들이 막막 쌓여 있어요 ㅎㅎㅎ
저도 넌넌넌 가져다 먹고 ㅎㅎㅎ



참고는네니, 유럽을 달린다
www.dancingbeny.com

발가락이 뿔~

매일 달리다 보면 발이 점점 커져요 @@



우리를 지켜보는 멋쟁이 할아버지 @@
포스가 남달라요 !



4700km 64days

68 runners

youngest=26 / oldest=74



두 분 다 연세가 꽤 높으시죠 ^^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보이시네요 ~ 커다란 스마일 날려주시니 기분이 넘 좋아요.



오늘의 도시 ~





오늘은 빨래가 잘 마르겠네요 ㅎㅎㅎ

젤 먼저 도착하면 빨래부터 ㅋㅋㅋ



딸기 하나 드세요~

히로꼬.. 6일만에 살이 쪼옥 빠지셨어요-



요건 뭐냐면요~ 화장실 앞에 테이블이 있고 매일 소변을 봐요-
건강검진의 일종인거죠 ^^



히야~ 오늘은 완전 넓은데요 @@
데굴데굴 굴러도 되겠다 ㅎㅎ



앗! 날씨가 좋으니 두 사람 밖에서 데이트하네요~

두 사람 보기 좋아요 ^^



서포터 리스트 ㅋㅋ

토올이네요 ^^
까호까호

세계여행, 유럽종단, 울트라마라톤

덧글 20 역인글 공감 8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탬프.

이탈리아여행전문부산블루여행사

2012년여름특가, 이태리왕복 51만원, 이태리일주 8일 154만원, 로마투어할인

모두투어온라인 유럽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유럽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번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다음 >](#)

[▲ top](#)

내 블로그 이웃블로그 모두의 블로그 바로가기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켄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1 2 3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북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Day10 /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6

10. Stage from Bellaria to Lugo

Datum 28.04.2009
Country 
Length 69.6 km / 43.2 mi
Total length 653.8 km / 406.3 mi
Einwohner 31500
Unterkunft Unterkunft- Palazzetto - Via Lumagni 30 - N44 24.854 E11 54.554

유럽종단 10일차.
매일 매일 부상자들이 늘고 있네요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혹시나 심장에 무리가 간건 아닐까

대회측 닥터가 있지만, 이번 유럽종단 마라톤에는 대학부설 병원에서 대회기간 내내 함께 하면서 선수들의 몸상태를 연구하는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테오할아버지를 진찰하고 있네요.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60

1,353,620

다행히도 큰 이상은 없어요.
단지 체력적으로 힘에 부쳐서 다리에 무리가 온거였어요.

그래서 대회를 포기하느냐?

천만의 말씀~ 어떻게 준비해서 오신 분들인데, 다리부상으로 집에 돌아가시겠어요? ^^
대륙을 종단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 모자를 벗으시니 나이가 흰~히 보이네요 ㅎㅎㅎ

서포터로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
이런 삶이 좋아서, 캠핑카를 사서 자원봉사하러 오신거 있죠~

참 원더풀한 선택입니다 ^^



이 분이 하는 일이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된 임무는 바로 선수들이 떠나고 나서 헛 정리를 하시는 거죠 ^^

자, 대회 **10**일째의 레이스 풍경을 함 볼까요?















참족는베니, 유럽을 달린다
www.dancingbeny.com



이날따라 도로에 갓길이 없어 많이들 힘들어 했죠.
사진찍기도 수월치 않고...

그래도 모두들 사고 없이 무사히 레이스를 마쳐서 정말 다행이었죠-

만일 저기서 뛰는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지 ㅡ.ㅡ 아찔~

피니쉬라인이 있는 작은 마을. LUGO

아름다운 날씨가 마을의 풍경에 마법을 걸었나봐요.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만 제가 다녔을지도 모르겠고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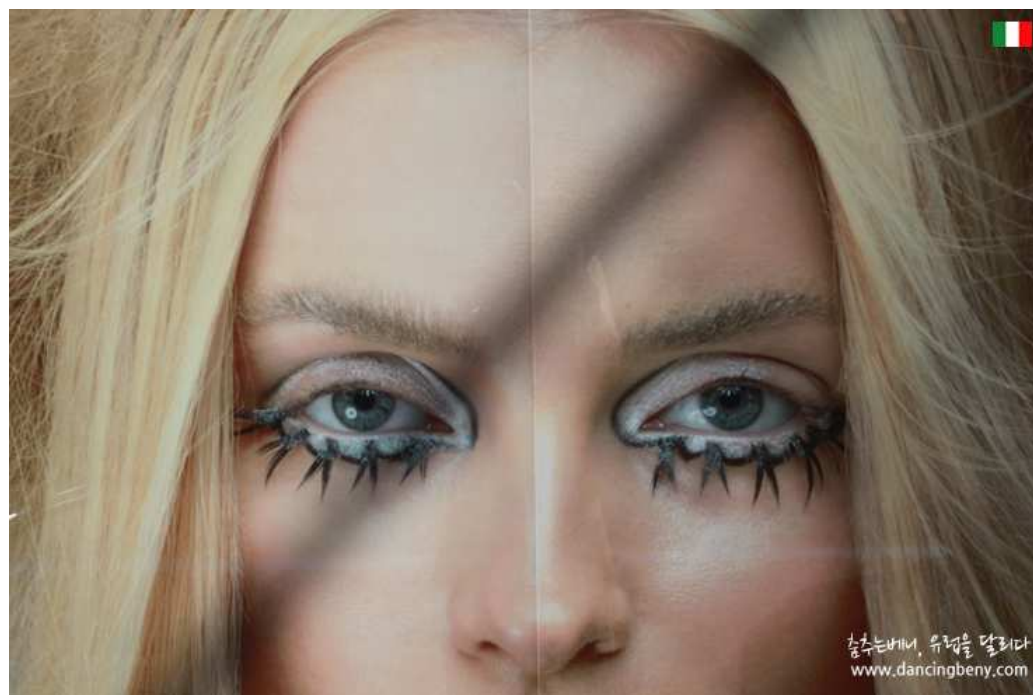




두 분은 절친. 항상 앞뒤로 나란히 달리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피니쉬라인으로 가는 길에 만났는데,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오는 모습이 참 정겹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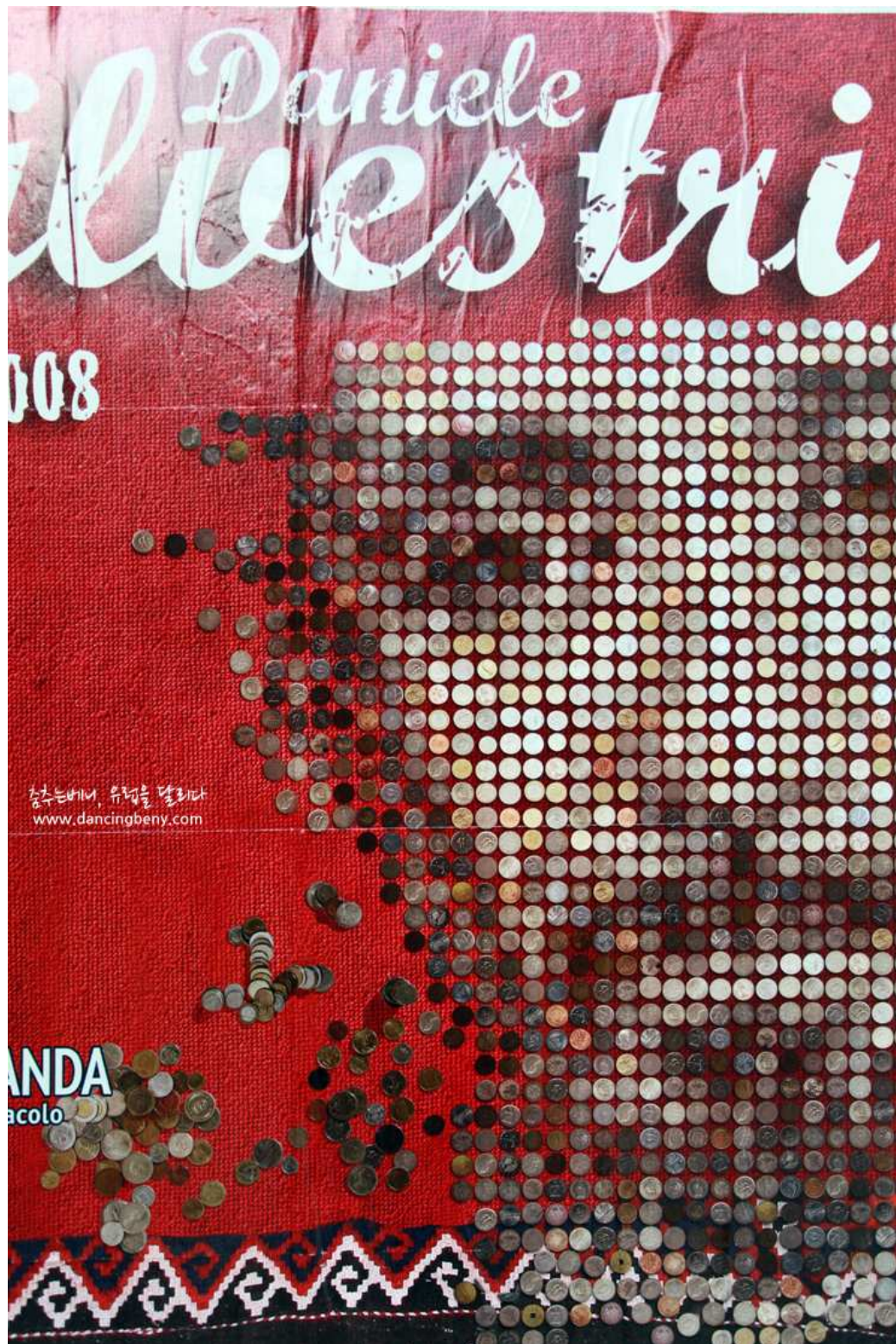
이분들 덕에 프랑스인에 대한 인상이 크게 좋아졌죠 ㅎㅎ
 (2006년 파리에 갔을 때 영~ 안좋았던 기억이 ㅋㅋ)

아래는 지나가며 본 인상적인 포스터들 이에요 @@





좀.. 그로테스크? ㅋ











자자, 피니쉬라인에 도착했어요 ^^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선수들 응원차 나왔습니다.





사이좋게 두 손을 맞잡고 들어오신 사에씨와, 토모씨



연인들의 포옹은 정말 .. 뽀글뽀글하게 만들어요.
특히 파퉁이 발목에 부상입어서.. 줄리아가 ㅜ_ㅜ 울먹울먹

그래도 무사히 들어와 줘서 둘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먼저 도착해서 샤워까지 마친 오른쪽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마중나왔네요

아주 훈훈한 모습 ^^



아우~ 드디어 골인~

너무나 행복한 미소죠? ^^



힘드셔서 바로 숙소로 못가시고 한참 쉬다가셨어요

할머니 운동화.. 통풍잘되라고 뜯어버렸네요 ㅎㅎ

이 마을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구요.

페라리의 본고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

검색해보니까 딱히 정보를 모을수는 없었는데, 그 말이 참이다 믿어보려구요 :)



바로 요게 있어서 그자리에서 인정했거든요 ㅎㅎ
이탈리어 잘하면 막 캐물어보고싶기도 했었는데 ^^





동네분들 구경하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

사실 이런 장거리 마라톤이 유럽에서도 흔한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구경하는 처지가 되곤 해요 ~



제 뒤로 보이는 동상은 1차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였던 프란세스코 바라카입니다. @@
유명한 분이신가요~ 오 !

계속

세계여행, 유럽종단, 울트라마라톤, 이탈리아

덧글 26 역인글 공감 5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탬프.

이탈리아여행전문부산블루여행사

2012년여름특가, 이태리왕복 51만원, 이태리일주 8일 154만원, 로마투어할인

모두투어온라인 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1 2 3

5줄 보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유럽종단] Day11 / 꽃밭에서는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

베니의 유럽종단 이야기 7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1



베니의 채식카페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62

1,353,622

11번째 날~

날씨가 오락가락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쯤에 지나가게 된 넓은 꽃밭이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죠 ^^

스텝들도 꽃밭에서 즐거워했지만, 우리뿐 아니라 이 곳을 지나가는 선수들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보였어요.











왠줄 아세요?

꽃밭이 나오기 직전에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허기진 배는 채웠거든요~ㅎㅎㅎ
거기다가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깔려있으니, 천국을 걷는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동양인들이 참 착하구나.. 어른들에게 잘한다 싶을 때가 많았는데,
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그리드할머니를 부축해주는 점이었어요.
우리들도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분을 보면 짐을 덜어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
어릴 적부터 몸에 벤 습관들이 작은 친절이 되어 독일할머니를 감동시키곤 했어요~
저도 가끔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참 좋아하셨죠 ㅎㅎㅎ



탁~트인 풍경에 제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노랗고 흰 꽃들이 얼마나 예쁜는지...



시로는 온 몸으로 느끼고 다니네요 ㅋㅋㅋ
요거 연사로 찍은사진들 중에 두 장만 고른건데요... GIF로 만들면 정말 우짚건데 ㅋㅋㅋ
시로 캐릭터를 알아야 더 재미있거든요, 저만 알아서 혼자 웃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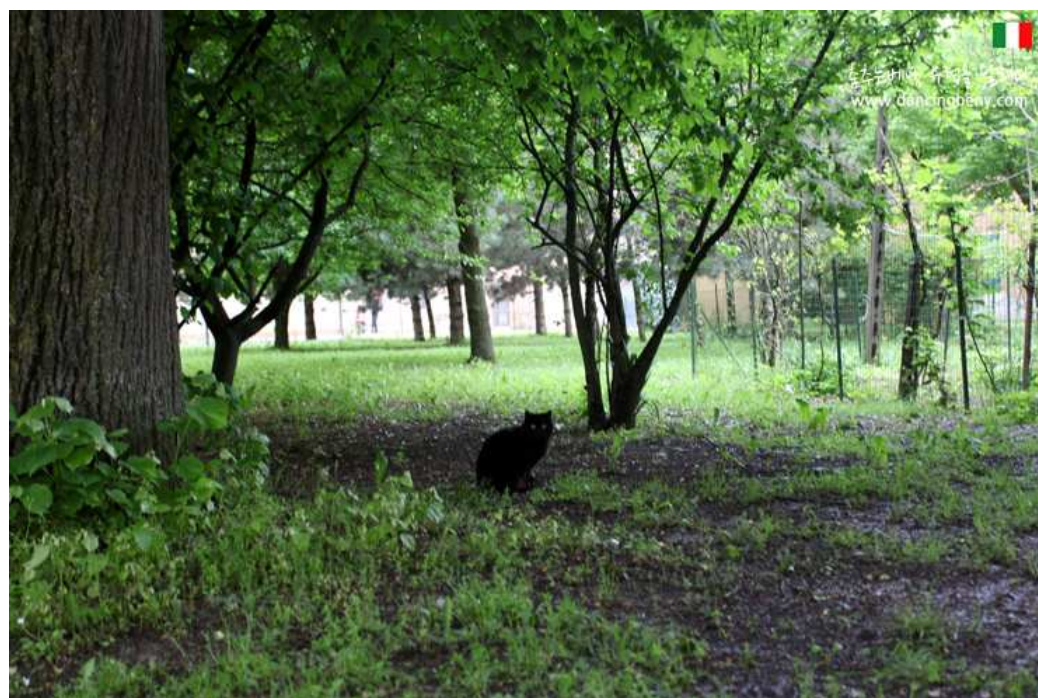


저도 당시의 기쁜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 봤는데~
뭐 귀엽지 않아요? ㅋㅋ



오늘의 피니쉬라인이 있는 작은 마을에 이렇게 커~~다란 교회가 있네요 @@
정말 웅장하기도 하지





검은고양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언젠간 꼭 ~한마리 입양해서 키워야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와요..

특히나, 혼자 달리기도 힘든판에 동료를 챙겨서 손을 꼭 잡고 피니쉬라인을 통과할 때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감정들은 이 사람들을 알고, 또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초조하게 기다리며 지켜보게되면 자연스럽게 나온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박스회사를 하고 있는 마이크.
터프한 외모와 길쭉한다리. 그리고 개성있는 캐릭터가 참 멋있던 분이셨죠.
사진발도 정말 잘발구 @@

머리술이 없으면 보통 가리고 다니잖아요? 머리를 심는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이 분은 트레이드 마크처럼 다 ~보여줘요.
모자를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



젊은 라이너 ㅋㅋㅋㅋ





홈 스위트홈 이라고, 숙소에 도착한 선수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해 보여요 ^^



오늘은 여기서 1박합니다.
천장이 나무로 마감되서 마음의 안정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자리는 좁지만, 날이 추울 땐 다닥다닥 붙어자면 따뜻~하니까 오히려 좋은점이지 ㅎㅎㅎ 더우면 짱나지만~



빨래를 마치고 편안히 누워계시군요 @@
빨래를 지붕삼아 주무시려나 ㅎㅎㅎ

나미상은 지금 미국횡단마라톤에서 일본팀 서포터로 오셨어요 ㅎㅎ



아~저의 훈남! GiBi아저씨!!!

레이스도중에 눈을 다쳤어요 ㅜ_ㅜ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사람들 안심시키고 다니는 맘좋은 아저씨~

프랑스 횡단마라톤(Trans Gaul)을 만든 분이예요. 해마다 아름다운 프랑스를 횡단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달리는 것이 인생의 낙인 아저씨. 겨울이오면 따뜻한 남미로 날아가 맥주마시면서 겨울을 보내며 진정한 노마드인생을 살구 계세요.

아 부러워라 ~

갑자기 미국에서 유럽으로 무대가 바뀌었죠!!

Refresh랄까요 ㅎㅎㅎ

미국오기 전에 포스팅 하려고 했는데, 못하구 왔어요 ㅡ..ㅡ

인터넷이 오락가락해서 예약걸어줬어요.

미국횡단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ㅋㅋ

세계여행, 유럽여행, 유럽종단마라톤

덧글 10 역인글 공감 4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청소년리더십캠프유럽여행

국토대장정38회, 리더십캠프, 제주도자전거캠프, 유럽여행22회, 미국명문대탐방.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유럽여행 추천 투어2000

유럽패키지전문, 유럽여행, 인기상품, 비교필수 초특가, 조기예약 선착순마감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Day11 꽃밭에서는 걸기만 해도 행복해요 ~ / TEFR2009 (10)

[유럽종단] Day10 달려서 행복한 사람들 (26)

[유럽종단] Day6 마라톤은 힘들어- (20)

[유럽종단] 썬비치 캠핑장에서 보낸 하루, 딸기농장에서 받은 공짜와인 (29)

[유럽종단] 이탈리아 카페를 찾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들? (TEFR Day3) (34)

다음 >

▲ top

내 블로그 이웃블로그 모두의 블로그 바로가기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1 2 3

5줄 보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북사

POWERBLOG
By NAVER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2009 트랜스유럽 풋레이스(유럽종단 마라톤)가 시작되는 도시 ITALY BARI

2007년 9월부터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 친구의 제의로 2009년 4월에 유럽종단 마라톤에 참가하는 행운이 굴러들어왔다.

유럽으로 날아오기 직전에 인사차 들른 옆집에서 프란체스카의 고향이 바리라는 걸 알게 되어 '우연의 일치'라는 신기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탈리아에서 요리사를 하다가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프란체스카는 호주로 유학을 와서 요리사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안부와 근황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큰 대회를 치르러 떠난다는 얘기를 듣더니 정말 반가워하며 좋아했다.

호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멀기는 멀었다. 비행기만 4번을 갈아탔고 2박3일이 걸렸으니... 유럽종단 여행의 시작은 타운즈빌 공항에서 이른아침 첫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브리즈번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뒤에 차이나항공으로 타이페이로 경유(친구네서 1박) 다시 방콕을 거쳐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하니 집떠난지 이틀만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공항에는 이번 종단에 선수로 참여 할 친구 '안'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70여일을 여행해야 하므로 엄청난 짐들을 가득 가지고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안... 오랜시간동안 쌓아온 온라인 우정을 로마 다빈치 공항에서 대면하는 순간이었으므로, 우리 두 사람은 첫 만남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흥분되는 그런 기분을 잠시 만끽하고 간단한 요기를 한 후, 로마 시내로 들어가 한국민박집에서 여정을 풀었다. 이틀이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종단계획을 꼼꼼히 세우기로 했다. 물론 로마 관광도 빼놓 순 없었지.

로마를 잠시 스쳐간 시간들은 [오늘,지구의베니 > 유럽의 베니](#)에서 볼 수 있다.

이틀간 로마에서 폭 쉬고 발기차를 타고 바리로 향했다. 좁은 2등칸의 긴 의자는 쿠션도 붙어 있지 않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와 갑갑을 자면서도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속으로 얼마나 1등석을 원했는지 모른다. ㅜ_ㅜ 옷가지를 깔고 누웠지만, 불편한 심기탓인지 철로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를 달리는 2등칸 기차는 제 멋대로 덜컹거리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서 도착한 바리의 아침은 굉장히 낯설고 피곤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와 바리의 거리는 대략 460KM

영어가 통하지 않는 도시에서 주소하나 들고 대회 집결지인 체육관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 어려울 줄이야... 버스정류장에서 한시간이 넘게 이사람 저사람을 쫓아다니며 묻고 물어 노선을 알아내는데 성공! 휴. 처음부터 여러가지 고생이 시작된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창밖으로 이어지는 거리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란 생각이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체육관에 도착해보니 체육관 실내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잠겨있었다. 우리가 너무 일찍 도착했기에.. 어쨌든 여러가지 절차들을 거치면서 도착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얼굴을 익혀가고 대회를 만든 잉고(Ingo over 60)를 만날 수 있었다. 후후후

온몸을 짓누르는 80kg가 넘는 짐들을 벗어 던지고 바리의 가장 큰 체육관에 여장을 풀었다. 이제부터 체육관에서 잠자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터!

당일은 너무 지쳐서 그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낮잠자고 주변의 슈퍼마켓 위치를 확인하고, 약간의 먹거리, 와인, 과일들을 사다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일찍 바리시내 관광을 나섰는데, 이 때 처음으로 찾아간 장소가 바로 위 사진의 카스텔로 성이었다. 카스텔로를 먼저 둘러보고 근처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냈다.

프롤로그가 너무나 길어버렸지만...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까지 날아간 나의 기나긴 여정](#)"을 설명하는 작은기쁨을 누리고 싶었다. ^^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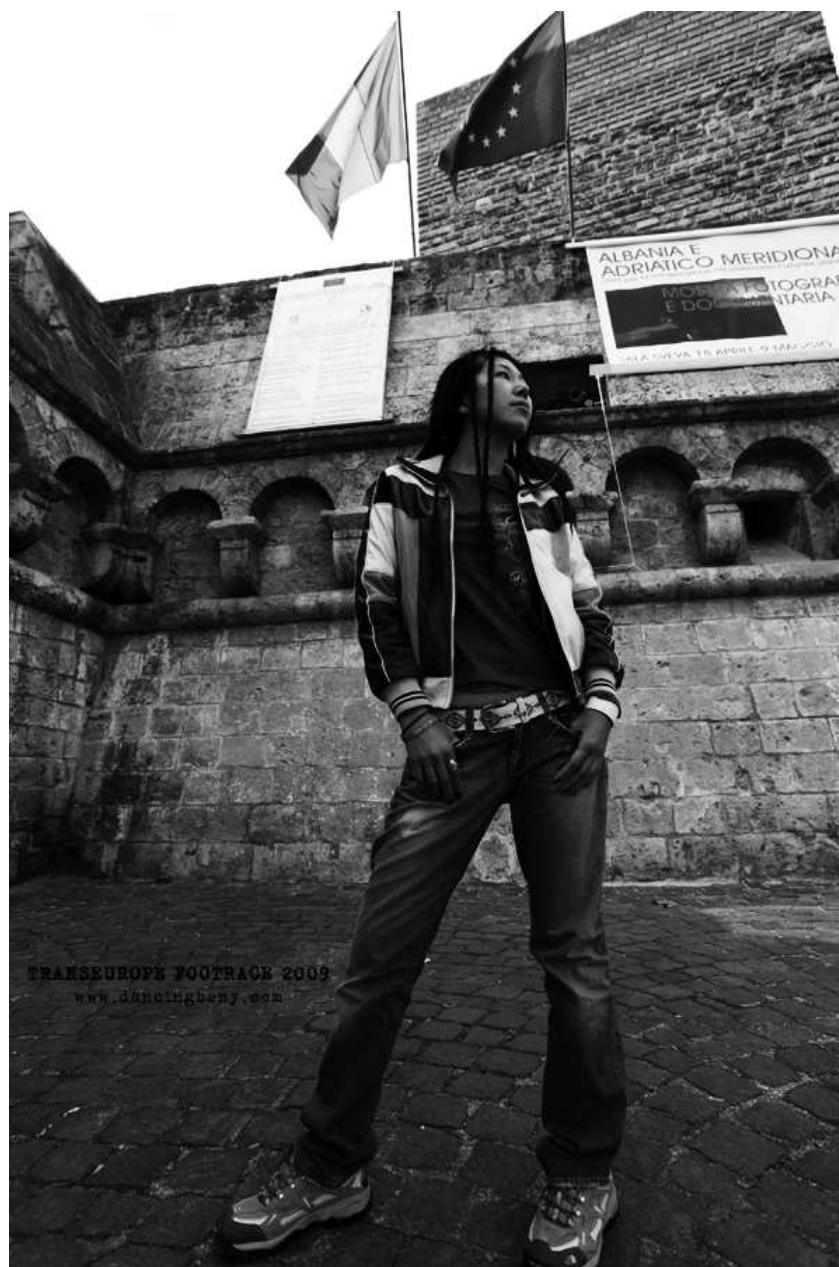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45

1,353,605



입구에서 모델놀이하며 폼 잡고 서있었는데, 이날은 뭘해도 그냥 신이나고 웃음이 피싹피싹 비어져 나왔던



2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방명록에 사인을 한 뒤 바로 카스텔로 성안으로 입성~
진짜 입성이다 @@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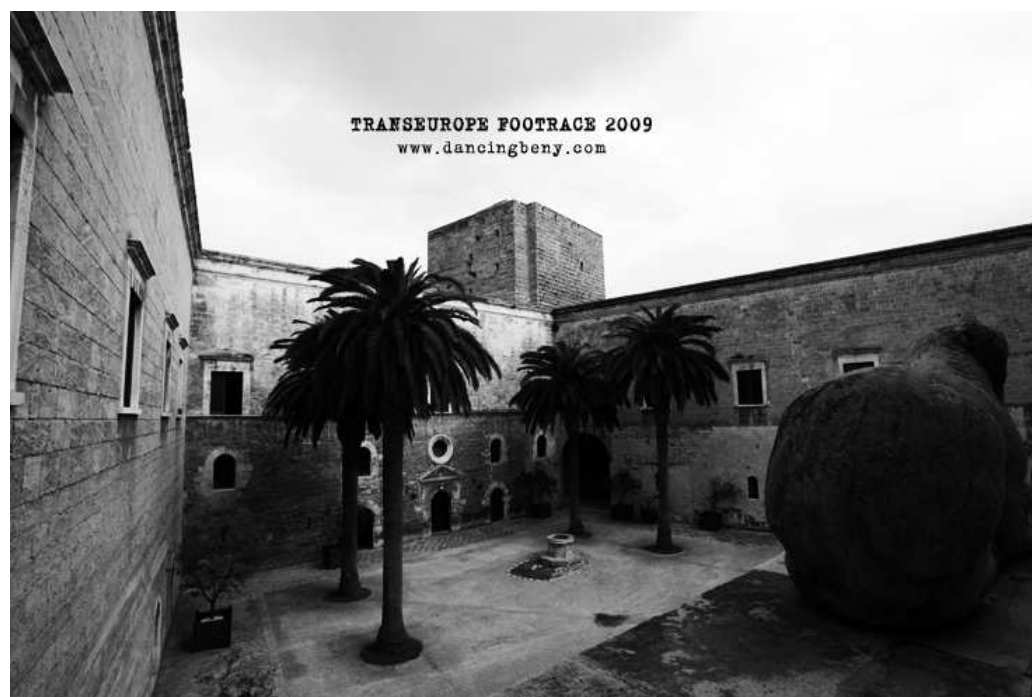
아주아주 한가해서 사진찍을 때 좋았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 무척 쓸쓸해 보인다.
바리를 찾는 사람들은 오래된 성보다는 항구로 나가 보트를 타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는게 더 기쁠지도 모르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에 띄는 석상하나.
4발 짐승이 앉아 있는데, 어찌하여 머리가 없는걸까?



2차 세계대전 때 머리가 잘려나간 걸까? 그저 궁금할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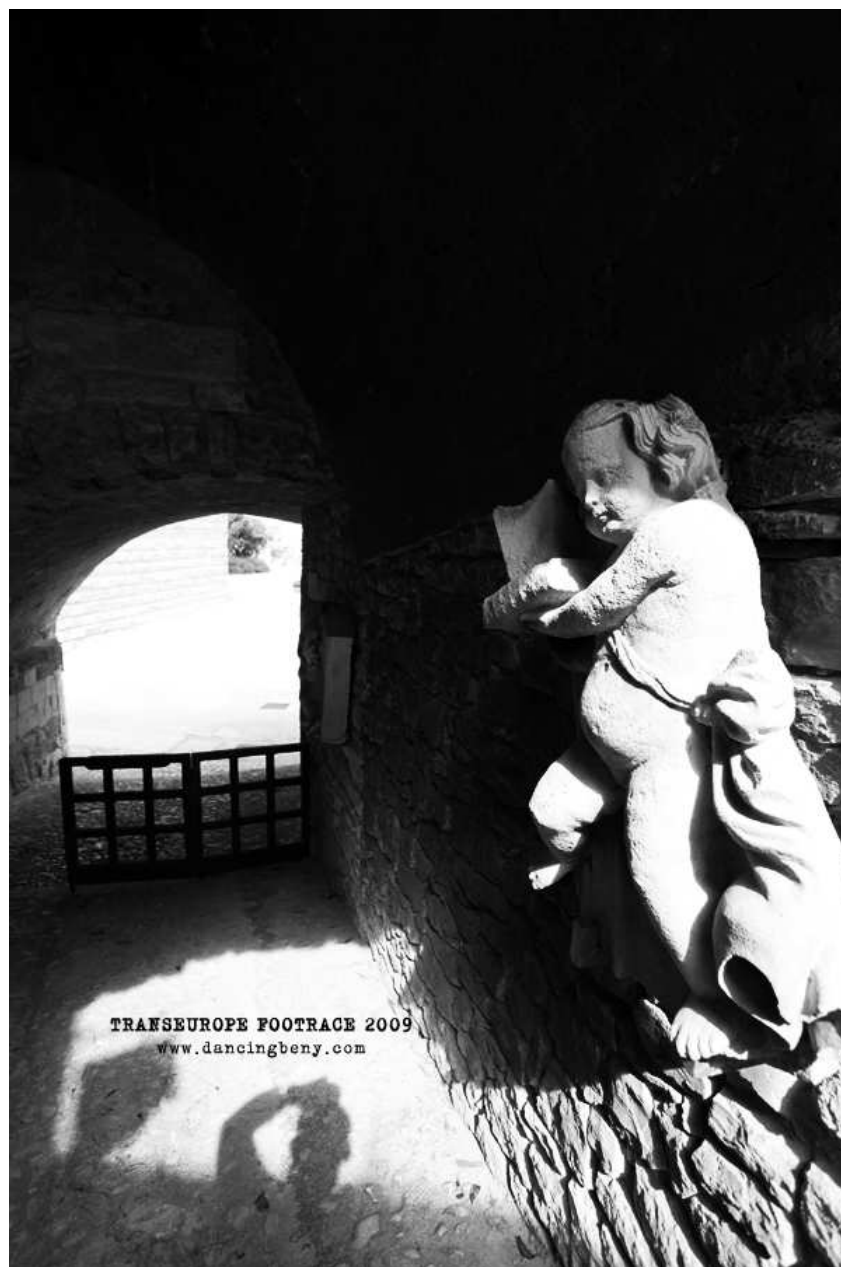
영덩이는 정말 예쁘기만한데, 머리가 없어서 슬프겠구나





성의 2층은 정말 볼게 너무나 없어서 허탈했던 기억이... 덜덜덜

세월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탈리아어로만 적혀있던 팜플렛에서 건진 내용은 별로 없었다. -_-;



별다른 장식물도 없고, 멋진 그림들도 안걸려 있던 맛있는 복도를 지나 성의 뒷쪽으로 빠져나왔더니..
후문이 나온다.



후문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올랐다. 하늘에 1층 높이만큼 가까워 졌고, 카스텔로 앞의 도로와 건너편, 집집마다 피뢰침을 꽂은 재미있는 풍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동네는 유난히 벼락이 많이 치나? 피뢰침 아니라면 저건 뭘까? TV안테나는 아닌것 같고 흠-



느릿느릿 성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길을 건너기 위해 성벽을 따라 조금 걸다보니 고양이 4마리가 맛있게 식사중이었다. 누가 먹이를 가져다 준 것일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모르고 밥먹는데 열중하고 있음. ㅎㅎ 귀여운 녀석들- 근데, 길냥이 치고는 몸도 깨끗하고, 건강해보인다 @@



위의 길냥이들은 내게 그냥 고양이이라면 이 검은 고양이는 내게 T.O.P같은 존재
도도하고 우아한 검은 고양이와 함께 살아보는 로망이 있다. 뭐, 언젠가는





가까이서 보니... TV안테나 같다 @@ 그지그지?



TRANSEUROPE FOOTRACE 2009
www.dancingbeny.com







특별한 목적지 없이 마음가는대로 흘러들어간 골목길

가는 곳마다 자주 보이는 성모마리아.
그들에겐 종교가 생활의 일부인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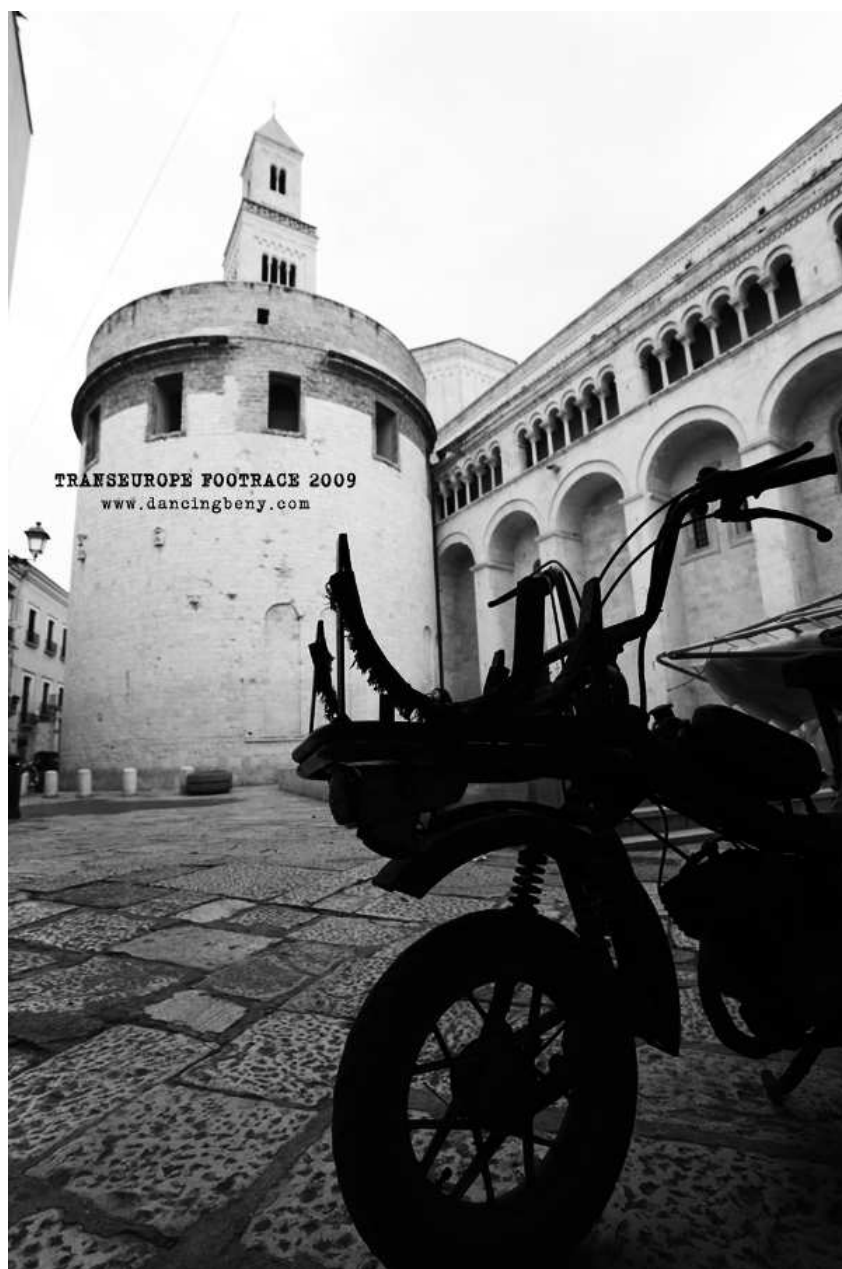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테라스를 점령, 혹은 빨래들이





걸다보니 커다란 성당앞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동네사람들이 죄다 성당앞 광장에 모여 놓고 있는 듯한 분위기



돌아오는 길에 만난 오토바이



부츠 뒤꿈치 부분이 바리에요 ^^

아, 기다란 부츠신고 여행가고 싶네요~



유럽종단마라톤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연재하게 될 예감이 들지만,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세계여행, 유럽종단, 이탈리아, 바리

덧글 13 역인글 공감 2

구독하기

북마크

보내기

인쇄

[어바웃 바리 가격비교](#)

바리, 생활, 주방용품, 잡화, 아이디어상품, 같은상품 최대 8% 추가할인.

[이탈리아여행전문부산물루여행사](#)

2012년여름특가, 이태리왕복 51만원, 이태리일주 8일 154만원, 로마투어할인

[모두투어온라인 유럽](#)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유럽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베니는 유럽종단마라톤에서 뭘했는가? (36)

· 이전

▲ top

prologue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Europe (11)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흐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 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1 2 3

5줄 보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 구경, 대회 전날 풍경 Cross Europe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 구경, 대회 전날 풍경
www.dancingbeny.com / 춤추는베니

Bari에서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어제 둘러 본 카스텔로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참가자들과 서포터들이 함께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한다. 바리시장이 TEF(제2회 유럽종단마라톤)팀을 시청으로 초대했다는 것이다. 오~



category ^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유럽 6개국을 통과하여 스칸디나비아 북단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의 큰 대회이다보니 유럽에서 빅이슈가 되었고, 그렇게 나 의미있는 큰 대회를 바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번 초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인고술츠(오거나이지)는 1년동안 6개국을 돌며 루트를 짜고 각 도시와 지방의 대표자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중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형식으로 축하를 받고 대회시작을 알리는 것이 대회를 만든 사람입장으로 얼마나 기분좋은 일일까? 나는 한 사람의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슴인 애드벌룬마냥 부풀어올라 하루종일 기분이 좋고 콧노래가 절로 났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웃으며 인사하고 다행히 호주생활로 조금 늘어난 영어덕분에 이사람 저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낯선사람들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일반 마라토너들에게 <보스턴 마라톤>이 꿈의 마라톤이라 한다면 울트라 마라토너들이 사막마라톤이나, 대륙종단 마라톤에 대한 꿈을 품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것이다. 한 번 외국여행에 맛들린 사람은 다시 여행가방을 챙겨들고 한 번도 만남적 없는 나라를 그리워하며 마음의 열병을 앓는 것처럼 말이다.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남자는 <이탈리아-영어> 통역을 하는 도우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탈리아 특유의 넉살좋은 아저씨였다. 수다스럽고 감정표현이 풍부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이사람 저사람에게 키스를 하며 프리허그를 해대는 유쾌한 아저씨. 콧수염때문에 뺨이 무지 간지러웠지만, 이 분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ajirimAfrica (6)
- 베니의 일상 1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넥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48
1,353,608



바리 시청으로 가는 길



바리 시청앞에서 단체촬영
사진속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니 59명이나 된다. (저도 있네요)



장시간에 걸쳐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지루해진 나는 카메라맨의 신분을 이용 오리조리 자리를 옮겨다니며 촬영을 했다. -_-;;

Bari시에서 기념으로 티셔츠와 모자 등 여러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짐을 늘리기 싫어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었다. (내 취향아니니까 ㅎㅎ)



다시 밖으로 나와 바리시내 관광을 시작했다.

아. 이것이 단체관광이구나 싶었다 -_-;; 국기만 들면 완전 그 단체관광 ~

이탈리아 사람들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패셔니스트들도 많아서 그런지 스쿠터디자인도 예쁘게 아주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아, 사진은 일반 바이크에 천사?그림이)



스마트도 심심치 않게 출몰! 파리에서도 스마트는 인기가 많더니 이탈리아에도 @@

사실 이탈리아... 운전해보니 도로가 굉장히 좁다. 대로변에서는 못느끼겠는데 2차선 혹은 일방통행 길로 들어서면 ... 덜덜덜 운전미숙한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차 긁기 좋을만큼 좁다 좁아!!!!

그러니 스쿠터나 미니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큰 차는 정말 별로 못봤으니까~ 적어도 내가 다니는 곳에선 그랬다. 밀라노처럼 큰 도시는 안가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

근데, 이 스마트 너무 예쁘죠?

전 이런 얼룩말 무늬 완전 좋아해요 ㅜ_ㅜ



골목길로 들어설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건물이 서로에게 가까이 붙어 있기에 건너 집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수 밖에 없다.
발코니까지 튀어나와서 그 간격은 더 좁혀지니 서로의 집안을 들여다 보는 일이 너무나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일까? 발코니에는 이 두가지가 꼭 있다.

예쁜 꽃이 가득담긴 화분과 빨래!

내생각인데, 화분등으로 자신의 집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빨래로 시선을 차단하는게 아닐까? ^^?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확실히 전달이 된다.







당신이 내 얼굴을 본적이 있던가?

어쩔 그리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지... 이 사람들의 환한 얼굴과 친절함 배려에 대한 답례로 나는, 크게 웃으며 **"Ciao Ciao ~"** 를 외친다.

차오(**Ciao**)는 처음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가볍게 인사하기 좋은 이탈리아어

Hi , Good bye 등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안녕"처럼 ^^





점심식사를 하러 항구쪽으로 향하는 길



싱싱한 해삼을 팔고 있는 어부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우리나라 바닷가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벌이고 방금 따온 해삼 명게를 팔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가만보니 이 할아버지 손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커다란 글로브를 끼신 것처럼.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할아버지의 손이 맞다.

갑자기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쭙보니 맨손!으로 오랜세월동안 성게를 까다보니 성게 가시에 찔려 독이 올라 저렇게 손이 붓게 되었다고 그러신다..

돈벌이가 쉽지 않은건 알지만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짠-해졌다.



할아버지의 손을 거친 성게들인 보기 좋게 한 접시에 담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 이리와서 한 잔 하고 가시게 ~

"아저씨들~안주는 안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스쿠터를 많이 탄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렇게 색깔 맞춰 잘 ~빠입고 빨간 스쿠터타고 달려가는 언니들을 만났다.
두 사람 데이트가는걸까? 어디 가는 거지?

나도 흰 옷으로 짝 빠입고 포인트로 빨간 모자 하나 쓰고 이 언니들 따라가고 싶었다.

아.. 흰 키티가방으로 포인트 준 저 언니 표정보고 그 맘 싸악- 접었다 -.-;



우리 숙소는 바리의 큰 스타디움

여기 모인 사람들이 100명이 넘으니 다 같이 잘 숙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고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실내 체육관>
앞으로 64일간은 체육관신세를 져야한다. 물론 캐러반을 갖고 온 서포터(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캐러반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종종 근처 호텔같은데서 잠을 자러 가는 사람도 있다.

레이스 도중 애인 혹은 배우자가 찾아오면 당연히 좋은 호텔로 가더라 ^^



도착한 순으로 좋은 자리를 잡고 내일 시작 될 대회를 위해 휴식을 보내는 사람들



러너들은 64일간 갈아 신을 운동화를 미리 싸들고 왔다. 보통 5-10개를 갖고 온다. @@
얼마나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는지?



이 소녀는. 아빠가 마라토너로 참가를 해서 온 가족(와이프, 아들 하나 딸 둘에 이 아이가 첫째)이 아빠응원하러 다 따라온 케이스 커다란 캐러반을 와이프가 운전하며 매일 70Km이상 달려야 하는 남편 곁을 지켜주기 위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라는데,

"가족이란 이렇게 끈끈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혼자서 계속 하게 만드는 대단한 프랑스 가족이었다. 진심으로

이 아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도 세 가족이 함께

대회에 함께 했던 가족들 중에 가장 어린(2살)아이. 그리고 우승후보자 마틴의 대회는 늘 함께 따라 다닌다는 아내. 헌신적인 아내의 내조로 늘 대회 Top에 랭크되는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시로와 어머니

여기, 아시아에서도 엄마를 응원하려고 날아온 아들이 있다.
시로의 어머니는 시로를 낳고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셨다고 했다. 건강이 악화되는걸 두려워하다 동네를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는데,
몸이 점차 좋아져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고, 심지어는 딸과 함께 미국횡단까지 하게 만들어 초울트라 마라토너가 되셨단다.

어머니의 미국횡단을 도왔던 딸은 여행기자가 되었는데, 대회마침비에 취재차 일본에서 날아와 합류하게 된다.

자식들의 응원에 힘입어 3위에 랭크되는 기록을 세우시는 강철 여성 ^^



오후에 간단한 대회브리핑을 마치고 저녁식사하러 레스토랑으로 고고~

내가 기대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으나.... 큼직한 접시위에 올려진 이탈리아 피자과 파스타!를 보니.. 눈물이 난다-



아이스크림 <아시나요>처럼 얇은 빵사이에 부드럽게 간 고기가 들어 있다.
난 미트파이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패스~



신선한 토마토가 잔뜩 올라간 피자~

담백하니 맛이 좋았다. 본토의 맛이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이탈리아에서 먹기 때문이었을까?
내일에 대한 기다림과 가슴속에 일렁이는 설렘이 식욕을 자극해서 아주 맛있게 몇 조각을 먹어치웠다.



오~그리운 이탈리아 파스타!

고소한 파마산 치즈를 듬뿍 뿌려서 어찌나 치즈스럽던지~ ㅎㅎㅎ
야채는 적게 들어가고 파스타만 잔뜩 들어있었지만 너무나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무한 리필이 안되는 관계로 빨리 내 접시로 옮겨 두지 않으면 다 뺏겨버린다.
식사시간에 늦게가면? 당연히 내 몫은 없는거지 -

오랜만에 경쟁을 하게 되었다.
아~내피는 이런데서 끓는단 말이지. ㅎㅎ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달콤한 와인도 한 잔했으니 기분이 최고조!

도란도란 옆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당시엔 누가 러너이고 누가 대회관계자인지 알 길이 없었다) 우리들의 보급자리로 돌아왔다.

난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쓰기로 했다.

그 때 적은 일기장을 들춰보니, 이 날 가장 인상깊었던 사람에 대해 짧게 노트를 해놨다.

대회 참가자 초고령자의 나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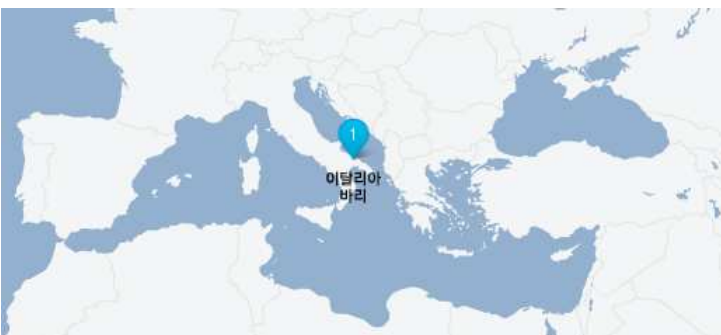
74세였다!(2009년)

1935년에 태어난 독일할아버지셨는데, 대회가 시작되고 오래지 않아 포기하셨지만.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나이는 많으셨으나, 어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눈빛이 맑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어서

어린축에 속한 나는 그분이 뿜어내던 빛나는 아우라 앞에서 입을 떠억- 벌리고 존경의 눈빛을 쏟아부었다.

"할아버지 정력 정말 좋으시네요!!"



이제 시작이네요 ^^

세계여행, 이탈리아, 유럽종단, 울트라마라톤, 바리

댓글 31 역인글 공감 5

구독하기 북마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탬프.

이탈리아여행전문부산물여행행사

2012년여름특가, 이태리왕복 51만원, 이태리일주 8일 154만원, 로마투어할인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유럽종단] Day2 이탈리아 남부는 여전히 호리지만 괜찮아 (26)

[유럽종단] 첫날은 흐린 날 속에서 가볍게 달리기~ (39)

[유럽종단]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도시 Bari 구경, 대회 전날 풍경 (31)

[유럽종단] 이탈리아 항구도시 바리(Bari)의 고성, 카스텔로 (13)

베니, 마라톤 44km에 도전? (47)

◁ 이전 다음 ▷

▲ top